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설 밥상머리

2021년에 이어 2022년 설에도 화두는 코로나19다. 1년 정도면 끝나겠지 하던 것이 어느새 2년을 훌쩍 넘어섰다. 올 설에도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란다. 가족친지간의 만남은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도 설 밥상머리에 올라갈 메뉴는 늘 정해지고 있다. 올해 설은 두 가지다. 코로나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오르고, 두 개의 선거가 함께 한다.

설 연휴가 지난 뒤 2개월 후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야구가 개막한다. 월드시리즈나 한국시리즈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다. 양팀간의 상대전적은 3승3패이고, 7차전 최종전

이다. 9회말 투아웃 만루, 볼카운트는 투스트라이크 쓰리볼인 상황. 스코어도 3-3이다. 안타 한 방이나 볼넷이면 승부가 갈린다. 물론 연장승부에 돌입할 수는 있다. 볼 하나에 양팀의 운명에 달린 셈이다. 양팀 벤치나 관중들 모두 긴장감은 최고조일 수밖에 없다. 영화나 만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한다.

야구경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통령선거가 나름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2강 1중 구도 속에 오자범의 내 접전이다. 박빙이다 하는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여야 정당 등 정치인들에게는 야구경기처럼 긴장감을 갖게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은 오로지 코로나19의 종식만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선 승부와 더불어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대선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빈약하다는데 있다. 나름 소속 정당에서 예선전을 거쳐 뽑힌 대표주자들인데, 선거과정에서 너무나도 혼쭐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이건, 가족 또는 주변 문제이건 간에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선택을 강요당하는 유권자들에게겐 고역(苛役)이다. 그래도 결판은 나게 돼 있다.

앞서 프로야구를 소개했는데 1992년 이후 올해로 30년째 이곳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치러진 역대 대선 결과를 살펴봤다. 우연찮게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은 3승 3패이다.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양 진영 간의 최종전(?)일 수 있다. 최종전이 돼야 한

다고 말하고 싶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 구도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켜온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어떻게 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선 일까지 40일 남았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어진다. 도지사과 교육감,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야 말로 민초들에게 더욱 중요한 행사일 수 있다. 치고받는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하겠지만 좀 더 나은 선거전을 통해 반듯한 사람들이 뽑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2년, 그 이상 일 수 있겠지만 그 시절을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들이 당선돼야 한다. 올해 설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공감했으면 한다.

사설

이동량 많은 설 연휴, 방역의 중대 고비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연휴가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된다. 예전 같으면 명절 때는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하지만 올해는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설 연휴에 20만명 이상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20만7000명(잠점)이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2월 10-14일) 5일간 15만3132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보다 35.2%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다. 5성급 이상 호텔의 객실 예약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렌터카도 80%, 골프장은 90%대

의 예약률을 보일 정도로 제주로 몰려든다.

큰일이다. 현재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함께 신규 확진자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서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제주지역도 오미크론 변이 문제가 분다. 현재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4일 32명, 25일 53명에 이어 26일에는 72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오죽하면 김부겸 총리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는가.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인만큼 최대한 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광제주 망치는 '먹거리 장난', 강력 처벌을

관광 제주의 유명 식품점객업소들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관광지 이름난 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이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하다 걸린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도 모자랄 판에 불법·부정식품을 버젓이 제공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을 앞둔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유명호텔 8개소, 일반 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 등 1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6건 등이다. 사례로는 중국산 고춧가루나 덴마크·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판매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삶은 족발과 멸

치액, 냉동유부 등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국내산 백패지를 흑패지로 표기하거나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도 나왔다. 아직도 먹거리 속이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하다 걸린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도 모자랄 판에 불법·부정식품을 버젓이 제공해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경찰은 반복되는 식자재 부정·불법 유통행위에 일벌백계로 나서야 한다. 현행 법상 최고수위 처벌이 '먹거리 장난' 재발을 막는 길이다.

그래픽 뉴스

국내 무공해차 보급 현황



열린마당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이 필요하다



나 의 응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플라스틱은 우리 현대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돼왔다. 하지만 석탄, 석유, 고무 등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 듯이 에너지의 고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한다. 또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 땅과 하천 및 바다로 투기되는 플라스틱류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시켜 인류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불편한 현실이다.

가정 등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그 예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개인컵) 사용, 마트, 시장 등에 물건을 구입할 때 1회용 비닐류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사용, 음식 배달 주문 시 불필요한 음식, 수저, 젓가락 등은 주문 시 거절하기, 부득이 외식을 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먹고 남은 음식물은 포장해 가져가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하기,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등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

만약, 일회용 플라스틱류를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사용을 줄이되,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으면 바란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이 점차 정착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라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조상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명: 양 오해사 (1943. 05. 19. 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송동산로 3, 601호 (서귀동, 류티름관리지)

상기자는 2021년 10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1년 12월 31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61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음 -

-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신고처: 서귀포시 송동산로 3, 601호 (서귀동)

2022년 1월 28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오창현, 오석현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 신상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한라봉, 탐나는중, 사리향(신종중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에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니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모듬(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를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베니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립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